

“부동산 투기, 대출 억제로 잡겠다”

인수위, 세금보다 유동성 관리에 우선

“집값 안정 꾀한 후 각종 규제도 풀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간사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관리를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명박 당선인도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인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부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최경환 간사는 7일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인수위는) 서민 주택가격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강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언급, “지난 5년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해 서민이 가슴에 못을 박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다. 첫째, 둘째도, 셋째도 가격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해온 것은 시장안정을 확고히 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선(先) 가격안정-후(後) 규제완화’ 순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가계·기업 심리 지표 악화 실물경기는 아직까지 견고”

KDI, 고유가·금융 불안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고유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부정적인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실물경기는 아직 견실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이날 발표한 ‘2008년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중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8% 늘어났고 서비스업활동지수는 7.8%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그러나 높은 생산 증가세와 더불어 체고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경기확장세 지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주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제조업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전경련 계절조정 BSI 모두 12월 들어 상당폭 하락하면서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7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생활용품 매장에서 활짝 핀 꽃모양의 접시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미국의 산업디자인사 ‘게이트 칼라일’의 작품으로, 접시 자체가 하나의 꽃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가격은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다양하다. /연합뉴스

인수위,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가닥 민간주택 분양가 낮아질 듯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간 주택의 분양가가 소폭 떨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5년 8·31대책 도입이 발표된 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도시지역내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부과 대상은 건축물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신규 주택은 물론 재건축 아파트도 부과대상이다. 부과 시점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3·4분기까지 징수된 금액이 1천500억원 수준이어서 연간으로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2% 안팎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사업자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뒤 이를 고스란히 분양가에 얹어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전가해 왔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3㎡(1평)당 5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현재 양천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5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가량 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재계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

공정위, 출중제 대안 찾기 고심

인수위 기업 친화 정책 ... 새로운 규제 도입 쉽지 않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방향을 확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중제를 대체할 대안 마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모토로 삼고 있는 인수위 새 정부가 새로운 규제 도입을 과연 받아들일 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정위의 업무보고 후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사후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사후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은 특별히 실효성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규제규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재계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06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중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나 사실상의 지주회사제도, 일본식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금지, 영미식 공시제도, 기업집단별 출중자제한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공정위가 당시 도입을 가장 희망했던 것은 바로 환상형 순환출자제를 직접 금지하는 방안이었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형태로, 계열사들이 환상형의 고리형태로 출자에 결국에는 총수가 3~4%에 불

등심·불고기값 급등...된장·김치찌개는 제자리

외식품목, 2005~2007년 상승률 조사

■ 지난해 주요 외식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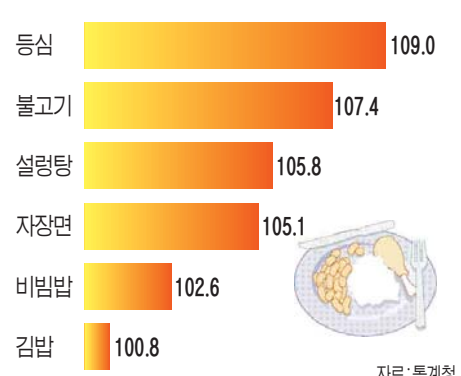
2005년 이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품목은 등심구이와 불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백반류와 햄버거·김밥 등의 가격은 2년 동안 별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7년 현재 조사대상 39개 품목의 외식가격지수는 103.9로 연평균 2%를 약간 밑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7년 현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로 2년간 4.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외식품목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큰 편차를 드러내 등심구이 경우 2005년 이후 9.0% 상승,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학교급식비(8.0%), 불고기(7.4%), 구내식당식사비(7.1%), 샐러드(6.9%), 커피(6.0%), 설렁탕(5.8%), 쇠갈비(5.8%), 튀김(5.4%), 갈비탕(5.1%), 스테이크(5.1%), 자장면(5.1%) 등의 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서 전년 대비 국산 쇠고기 가격은 1.9%, 수입 쇠고기는 5.2% 각각 하락했지만 등심구이, 불고기, 쇠갈비 등 쇠고기류 외식품목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상승률 상위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이는 쇠고기 가격 하락의 영향이 아직 외식품목으로 확대되지 않은데다 외식 품목의 경우는 가격이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삼겹살과 삼계탕은 2005년 이후 2년 동안 가격이 각각 4.5% 올랐고, 돈가스(4.2%), 돼지갈비(4.0%), 스테이크(3.7%), 볶음밥(3.4%), 탕수육(3.0%), 비빔밥(2.6%), 냉면(2.3%)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못미쳤다.

된장찌개(2.0%), 김치찌개(1.9%) 등 백반류와 피자(1.8%), 햄버거(0.9%), 김밥(0.8%) 등의 가격은 2년 동안 상승률이 미미하거나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올 자산관리 최대 핵심이슈

“지역·자산별 분산투자다”

올해 자산관리의 최대 핵심 이슈는 지역별·자산별 분산투자의 중요성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신상근 연구원은 7일 ‘2008년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관리의 4가지 이슈’라는 보고서에서 “탈려화 가치하락과 선진국 경

기둔화는 궁극적으로 특정 이머징국가(신흥국가)들의 주식시장에도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시장의 주된 관심은 투자형 자산에 머물겠지만 무위험 예금리 8%를 넘어선 일시적으로라도 확정금리형상품의 비중 확대를 고려

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투자형 자산중 선진국 경기의 둔화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높은 기대수익률에 길든 국제 투자자들을 유혹할만한 재료를 보유한 일부 이머징국가와 대인투자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올해 일어나지 않을 자산관리의 4가지 이슈로 ▲예금리 8% 상회 ▲미 달러의 갑작스런 강세 전환 ▲국제상품가격 큰 폭 하락 ▲이머징마켓 변동성 하락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은행권, 中企·가계대출 조인다

예금이탈 자금난 ... 1분기 대출억제 예고

최근 예금이탈로 자금난 겪고 있는 은행들이 올해 1·4분기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을 바짝 조일 계획이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총괄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대도지수 전망치는 -38로 전분기 -28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억제가 강도높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대출형태 지수가 플러스이면 ‘대출안정화’를, 마이너스면 ‘대출억제’를 하려는 은행이 많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대출을 억제하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핵심예금 이탈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점 등을 꼽았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도 늘어나 이들의 신용위험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이 대출을 더욱 조일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중기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포이트텍	경리부 여직원 모집(외국어가능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09	062-942-0451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 구내별 신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9	02-360-7113
오페라 소프트센터	오페라 소프트센터 인포 안내데스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10	062-966-9403
기아자동차주경서대리점	2008년 상반기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1	062-655-7400
프리카스(이지알)	SK텔레콤 114 정규직 남여성담임/광주지역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1/11	062-383-1756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특허중립실용성관련 컨설턴트 채용 공모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1	062-954-3841
S&P환경기술	개발자 및 생산관리 연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1/12	011-624-0648
대우	[건설현장/사무관리] 정규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12	062-974-4999
서원	[생산관리/영업관리/설계/총무] 분야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2	062-224-3478
서울검사	정규직 비파괴검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12	062-369-0790
동양생명보험	2008년 자산관리사 공채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4	062-226-4904
화인테크	인테리어팀 캐드기사 모집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1/14	062-521-4567
포도양주	[포도삽입업/활영보조] 정규직 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14	011-9615-0945
신원테크	영업 및 영업관리(산업용기스)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15	062-951-0011

(광주지킴이 512-6210 제공)

학력·연령조건 폐지 ‘열린 채용’ 는다

올해에는 학력이나 연령, 어학점수 등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열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기업 516개사를 대상으로 열린 채용의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4%가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응답률은 지난해 조사 결과(35.2%)보다 9.2%p 높은 수치다.

열린 채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공기업으로, 92.5%가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대기업(46.5%), 외국계 기업(40.0%), 중소기업(37.0%)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